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전 용 배

타이거 우즈와 살아남은 자의 슬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성추문은 2009년 연말 지구촌을 강타한 최대의 가십이었다. 적나라한 사생활 폭로로 한 인간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시각은 극히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을 뿐 모든 것이 노출되어, 그동안 쌓아왔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한 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라는 찬사를 들었던 타이거 우즈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함의가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판단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타이거 우즈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도 현역시절 도박과 여자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도박은 중독수준이었다. 그 이외에도 세계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던 스포츠 스타들 중에는 타이거 우즈나 마이클 조던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은 극심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이다. 연예계, 정계, 스포츠계는 이등을 기억하지 않는 곳이다. 즉 승자독식구조이다. 승자독식구조는 참가선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 '승리 아니면 죽음을 다오'이다.

승리는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일시적으로 안겨주긴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달콤한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끝없는 경쟁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연예계 스타는 '자살의 그림자'가, 스포츠 스타는 '일탈의 그림자'가, 주목받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의 그림자'가 운명처럼 드리워져 있다. 최고가 아니면 용서가 되지 않는 환경이 이들을 자극한다.

원래 스포츠는 단순한 놀이에서 출발했다. 근대 유럽에서 발전한 스포츠는 '유희성'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오락이나 재미와 관련이 깊다. 이러한 스포츠가 미국에 전파되면서 새롭게 탄생했다. '경쟁성'이 추가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세계질서를 장악하면서, 스포츠의 '경쟁성'은 미국의 경쟁력을 담보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물론 강함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는 하지만, 스포츠는 미국 자본주의와 만나면서 무한경쟁을 선언하고 이를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경쟁력 있는 '스포츠 영웅'의 출현이었다. 영웅이 없는 오늘날 유일하게 영웅대접을 받는 것이 스포츠스타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은 영웅이 아니라 극심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해야하는 나약한 인간 일뿐이다.

타이거 우즈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에 '페인 스튜어트 사건'이 있다. 니커보커스 복장에 중절모가 트레이드마크인 페인 스튜어트는 1999년 여름 US 오픈에서 우승하고, 그해 가을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협회는 PGA선수권대회의 일정을 조정하여 참가 선수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모든 선수들이 플로리다 주에서 거행된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타이거 우즈만 빠졌다. 장례식 후 치러진 PGA 선수권대회에서 타이거 우즈는 당당하게 우승하고 개인적으로 묘소를 참배했다. 타이거 우즈는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회를 앞두고 스튜어트의 장례식에 참석하면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보편적 정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극심한 경쟁이 상존하는 스포츠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살아남은 자들이 원하는 건, 현실에서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경쟁은 피해갈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았는데도 슬프다는 것이다. 오늘 밤 타이거 우즈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라는 브레히트의 시(詩),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되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누가 살아남은 것이고, 누가 살아남지 못한 것인가. 과연 이것이 타이거 우즈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

〈동명대 체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금호그룹 워크아웃' 조기 정상화 계기로

금호아시아나 그룹 주력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6일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이에 따라 약 3개월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되며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방안이 실행에 옮겨진다.

그룹회생을 위한 큰 틀의 방향은 잡힌 셈이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

호남 유일의 10대 기업인 금호아시아나의 위기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은 착잡한 마음이다. 시민단체에서부터 지역경제계는 물론 정파를 초월한 정치권 등 금호그룹 회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금호그룹이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데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지역민들은 '아름다운 기업' 금호가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비를 넘기면 초일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금보다 더 엄혹했던 외환위기 때도 금호그룹은 공적자금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전례가 있다.

금호그룹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경영진부터 통렬한 반성과 함께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심정으로 철저하고 신속하게 회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금호그룹은 이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임원 수를 20% 줄이고, 임금도 20% 깎는다. 보유 자산도 팔아 1조3천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사무직은 1개월 무급 휴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무적 정상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을 끌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진다. 그러나 과도한 인력 감축만이 능사가 아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시 고강도 청렴대책 실천이 관건이다

광주시가 고강도의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신뢰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공직이 부패와 절연(絶緣)해야 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 시의 이번 대책은 시의적절하다.

광주시는 6일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횡령한 공무원에 대해 해임 또는 파면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이 뇌물 또는 향응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뇌물과 향응액수의 최고 20배, 1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시의 청렴도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광주시의 청렴도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에는 미흡한 수준인 것도 사실이다. 시가 이런 강도 높은 부패 근절대책을 내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시의 이번 대책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부산시의 경우 비리 공무원에 대해 '지위고하와 액수 과다'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임 또는 파면키로 했으며, 금품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광주시 대책보다 훨씬 강도가 높고 구체적이다. 이에 반해 광주시는 해임·파면이라는 중징계의 기준에 수수 금품 액수의 상한선을 제시했다.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100만원 미만의 금품 수수는 괜찮은 것인지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시의 부패 척결의지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청렴도는 국가 및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행정이 청렴하지 않고서는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광주시의 청렴 대책은 엄정한 집행과 공직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일지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광주시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의료 칼럼

허 정

저출산은 국가의 위기다

우리나라는 산야가 75%이고 평야가 20%인 넓지 않은 국토에 인구 밀도는 높았다.

좁은 국토에서 예부터 식량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굶는 것이 다반사였던 불행한 역사가 1970년대까지도 지속돼 왔다.

그래서 정부는 80년대까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을 20여년 동안 펼쳐왔다. 그때만 해도 식량 자급률이 낮고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에서 곡물 수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강력한 가족계획 사업으로(반 인권적요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인구 증가를 막아왔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는 가능한 논리이지만 인구가 국가의 국력의 척도가 되는 산업사회, 정보화 사회에서는 적정한 인구가 필수적이다.

자고로 강대국의 한 요소로서 자국의 시장지배력과 산업인구의 확보를 위해선 약 1억명 정도의 인구를 가져야 강대국의 조건을 갖추고 다른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인 저출산국 (1.17명)이 되어 문제의 심각성이 몇 배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여건은 저출산을 한층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째로 젊은 여성들의 직장생활로 인한 육아의 어려움, 둘째로는 자녀의 과중한 교육 및 사교비의 부담, 셋째 여성 개인들의 출산 보다는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중점을 둔 여성들의 가치관 변화, 넷째로 지속적인 결혼연령 증가(남성 31.5세, 여성 28.5세)로 인한 임신 및 육아기간의 단축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그때 그때 중구난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대처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결론은 여성 1인당 2.10명 이상의 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것이다. 향후대책은 종합적이면서 젊은 세대가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첫째로 육아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과감히 투자해 육아문제를 책임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정상적인 공교육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한 발 더 나아가 한 자녀나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국가가 부담하는 총체적인 부담을 본인들이 지게 할 수 있도록 세제개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일부 자녀 병역특례 및 세제 감면 등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

올해는 60년 만에 찾아오는 경인년(백호띠)이라 한다. 여담이지만 백호띠에 출생한 사람은 좋은 사주팔자를 갖는다는 덕담이 있다. 지난 2000년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붐과 쌍춘년 및 황금돼지해의 출산율 증가처럼 올해에도 출산이 늘어 국민 모두의 마음이 흐뭇해지고, 넉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에덴병원장〉

기 고

김 철

건강한 광주천 시민이 만들자

광주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이 오랜 공사 끝에 지난해 12월 말 준공됐다. 2004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돼 5년 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자연형 하천의 의미는 생태적 기능이 훼손된 인공적 하천을 인간이 자연에 가깝게 조성하는 것으로, 인공적인 하천을 자연 하천으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광주천 사업의 준공은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인 유지보수와 시민들의 참여에 의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70년대 이전에는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치수 위주의 사업과 그에 따른 복개사업이 주류를 이뤘다. 그 뒤 80년대에는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거나 하천부지 위로 고가도로 등을 건설하는 점용하천 시대였으며, 90년대 들어서 공원 하천이 등장했다.

공원하천은 친수 기능에 중점을 두고 개발한 하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물서식처로서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천의 바람직한 환경개선은 서식처의 보전과 복원을 위주로 이뤄져야 하지만, 많은 인구가 밀집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주민의 이용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하천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자연형 하천과 공원 하천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주천은 이와 같은 조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하천이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겠다.

광주천의 과거로 거슬러 가보자. 충장로 부근의 광주천변 주차장 사진은 지금도 과거 점용하천의 예를 보여줄 때 꼭 나타나는 사진이며, 고수부지나 호안 등이 모두 콘크리트로 돼 있었고, 양동시장 하류 쪽에 정체된 수역에서 볼 수 있는 썩은 물 등을 시민이라면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하천에 흐르는 유량은 홍수기를 제외하면 거의 흐르지 않은 건천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사실 하천의 생태계를 유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하천에 흐르는 유량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광주천에 흐르는 유량은 1일 14만t으로 크게 늘어, 평균수심이 약 30cm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유량은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기존의 콘크리트 보를 여울형 낙차공으로 바꾸고, 저수호안은 갯버들 등을 식재해 수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천의 관리는 행정기관의 소관이지만 하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광주시민 모두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광주에서도 시가 주관이 돼 43개 단체가 참여, 광주천 환경정비 및 정화활동을 하고 있으며, 여러 환경단체들도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도 자생적인 하천 살리기를 위한 단체나 개인들이 계속 늘어나 광주천을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으로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 하천을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도시의 상업기능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대표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호남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無 等 鼓

다보스 포럼

매년 한겨울에 세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상한 대이동을 한다. 밥 먹을 틈까지 쪼개서 빡빡하게 채운 스케줄을 제쳐 두고, 스위스의 작은 산을 오른다. 자동차, 기차, 헬기 등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한 곳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리는 스위스의 작은 스키마을 다보스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스키를 타지 않는다. 대신 컨벤션센터에 틀어박혀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토론하고 대화한다. 다음 포럼의 주제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되는 것도 없다.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없는 '세계 지배자들의 정상회담'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왜 다보스 포럼에 그토록 저명한 인사들이 몰리는 걸까. 프랑스의 경제학자 장 마크 비토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띄기 위함"이라고 요약한다. 다른 사람의 성과를 보고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다보스 포럼은 지난 1971년 스위스의 젊은 경영학 교수였던 클라우스 슈바프가 '미국의 도전'이라는 책을 읽고 이에 대한 유럽의 대처방안을 숙고하기 위해 기업인, 교수, 정치지도자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 시초다. 제 1회 포럼 참석자는 30여명에 불과했다.

포럼은 규모가 커지면서 적대 관계의 국가 지도자들에겐 화해의 장소를 제공했다. 그리스와 터키, 남북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이 다보스를 활용한 것이다. 아시아 신흥국가들은 자국 경제 부흥을 위한 외국자본을, 경제인들은 신제품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를 이곳에서 구했다.

포럼은 올해도 오는 27~31일 열린다. 주제는 '더 나은 세계 : 다시 생각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다시 건설하자'이다. 금융위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지구촌을 구할 아이디어가 도출될지 기다려진다.

/김주정 정치부장 jjnews@kwangju.co.kr

수험생들 다단계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수능이 끝난 요즘 학생들은 용돈과 대학 입학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 구하기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고등학생들을 노린 위험한 함정이 걱정된다. 그것은 다단계 사기 수법이다.

다단계가 학생들을 유인하는 문구는 '고수익 보장'이다. 선·후배 등의 인맥을 내세워 고액의 투자금을 받은 후 불법 금융 다단계 교육을 시켜 새로운 사람을 끌어 모으는 수법을 쓴다. 일단 데리고 들어가면 몇 주 동안 인수인계 같은 수습을 하며 복지제도와 월급을 다 말해주면서 슬슬 그 조직에 동화를 시킨 후 투자를 권유하는 식이다.

학비 조금 벌어보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자칫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가정에서 수능을 마친 자녀들이 이런 다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겠다.

▲배나현·광주시 북구 장등동

음악 다운로드 무료사이트에 속지말아야

요즘 저작권 때문에 음악을 다운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즉 얼마간 공짜로 음악을 내려받을 수 있다면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사이트들은 일단 무료라는걸 내세워 회원들을 가입시킨다. 그러나 막상 가입하고 보니 음악을 다운받으려면 돈을 내도록 되어있고 속았다는 생각에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빠져나간다. 이런 사이트들의 수법은 무료 체험을 내세워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고객도 모르게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사이트들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며 애초에 처음 가입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그 번호로 자동결제를 이용하도록 가입을 권유한다.

이때 가입자들은 일단 공짜로 음악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큰 의심 없이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 사이트들은 휴대폰 요금에 회원료 명목으로 돈을 빼가는 것이다.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이 이런 것에 가입할 경우 부모님들이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